

한국 꽃담의 모티브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 꽃문양 중심으로 -

송혜련

서울중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겸임교수

요약

문양은 한 민족의 미의식, 생활의 여건과 감정, 정신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시대와 민족에 따라 특징적 양상을 보이므로 디자인에 한국 전통 문양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나타내어 국제화 사회에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미의 한 모티브로 꽃담에 나타난 문양 중 꽃문양의 다양한 형태와 조형성을 연구하고 현대 패션에 응용된 꽃문양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꽃담에 나타난 꽃문양을 이용한 새로운 표현기법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통 문양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꽃담에 나타난 문양을 재구성하여 실물 작품 6벌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꽃담에 나타난 꽃문양은 형(形)과 선(線)이 단아하고 소박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우리 미의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둘째, 담에 나타난 꽃문양 모티브 재구성을 통해 문양 디자인의 무한한 창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셋째, 가죽을 응용한 핸드페인팅은 채도가 낮고 고풍스런 꽃담의 색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며, 또한 올 풀림이 없어 어플리케 기법으로 꽃담 문양의 다양한 특징적 형태와 조형성을 응용하는데 적합하다.

주제어: 한국전통 꽃담, 꽃문양, 패션 디자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국제화나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 시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각각의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민족 문화의 공유는 패션계에서도 ‘민속풍(ethnic look)’이 주유테마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통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역과 자연에 기반을 둔 전통의 가치를 고유의 문화적 형태와 결합하여 새롭게 현대적인 양식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재 우리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조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전통문양을 패션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문양은 한 민족의 미의식, 생활의 여건과 감정, 정신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시대와 민족에 따라 특징적 양상을 보이므로 디자인에 한국 전통 문양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나타내어 국제화 사회에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건강과 부귀, 다남 등을 기대하면서 담장이나 벽체에 무늬를 장식하기 즐겨하였는데 이를 화문장(花紋牆), 화초장(花草牆)이라 하며 순수한 우리말로는 꽃담이라 한다. 담에 나타난 문양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삶을 엿볼 수 있다. 담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내부와 외부 공간을 연결하고 차단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 인간을 보호하고 내적으로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다. 담의 이런 의미는 외부 환경에 대해 신체를 보호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아 표현이나 신분 상징 등의 역할을 하는 의복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다. 이러

한 담과 의복이 갖는 공통적 의미는 현대 복식디자인에 창조적 가치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미의 한 모티브로 꽃담에 나타난 문양 중 꽃문양을 다양한 형태와 조형성을 연구하고 현대 패션에 응용된 꽃문양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꽃담에 나타난 꽃문양을 이용한 새로운 표현기법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통 문양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전통미의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문화의 가능성을 국제 무대에 알림과 동시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 전통담의 이론적 배경과 문헌 사진 자료를 통해 꽃담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전통미의 한 모티브로 꽃담에 나타난 문양 등을 재구성하여 실물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첫째, 한국 전통 담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담의 정의와 역사를 알아보았다.

둘째, 문양에 따른 담의 종류 중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하여 꾸몄던 꽃담 문양의 종류를 문헌자료에 나타난 사진들로 조형적 형태에 따라 분류, 정리하여 그 개념과 상징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꽃담의 꽃문양을 자수, 민화, 도자기, 능화판에 나타난 꽃문양과 비교하여 그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전통 꽃문양을 현대 패션으로 전개시킨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꽃담에 나타난 문양 중 현대 복식에 잘 표현될 수 있는 꽃문양을 선택하여 재구성하고, 문양 표현기법으로 아플리케, 핸드페인팅, 비딩, 누빔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의상에 도입하여 총 6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전통 담에 관한 고찰

인간의 주거양식 가운데 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 담이란 “집 가를 둘러막는 물건”을 의미한다.¹⁾ 한국 고건축물은 대부분 장방형이나 대칭의 정연한 형태를 이루어 건물만으로 형성되는 외부 공간은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때 공간을 한정하는 대표적인 것이 담인데 이것은 본래 경계를 표시하며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방어적 기능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의 한옥에서는 이러한 기능 외에 순수하게 공간감에만 활용되어 심리적 공간 형성을 위해 이용되었다.²⁾ 오토 볼노브(Otto F. Bollnow)(1967)는 「인간과 그의 집」에서 “집이 그 사명 즉 인간에게 안식과 평화속의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외적 울타리(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형성되어야만 하며 그 공간은 평화의 분위기를 내뿜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담은 외부 세계로부터 침입자를 방어하는 기능, 안식과 평화의 기능, 공간질의 구별 기능, 신성화 기능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³⁾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인류사에서는 선사시대 주거 발생 이후이며 한국 건축에서는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평남 용간군 안성동 대총 전실 남벽 서부 누각 도에서 고구려시대의 담장을 찾아볼 수 있다.⁴⁾

한국 담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선사시대부터 부족국가시대에 이르기까지는 담에 대한 기록이나 유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담의 존재를 강력히 입증해주는 시기는 삼국이 정립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평남 용간군 안성동 고분에서는 현존하는 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담 상부를 숫 기와, 암 기와로 지붕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고⁵⁾ 신라시대의 담에 대한 고

찰은 「삼국사기」 33권 옥사조(屋舍條)의 기록에서 궁궐의 담장에 대한 언급과 계급에 따른 제한을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담장에 대한 고찰⁶⁾역시 문헌속의 기록으로만 찾아볼 수 있으나 이 시대 역시 삼국시대의 담장 건축을 계승, 발전시켰으리라는 추측은 성립될 수 있다. 담에 대한 구체적, 시각적인 자료는 조선시대에 와서야 얻을 수 있다.⁷⁾

2. 꽃담 문양의 종류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담장이나 벽체에 무늬를 장식하기를 즐겨하였는데 이를 화문장(花紋牆), 화초장(花草牆)이라 하며 순수한 우리말로는 꽃담이라 한다.⁸⁾

꽃담이란 일반적으로 전, 기와조각, 돌 등을 박거나 쌓아서 문양을 만드는 것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담장 뿐 아니라 꾸밈골뚝, 골뚝 더 나아가서는 건물의 지붕 위쪽 옆에 박공으로 「人」字모양을 이룬 합각(合閣)에 까지 연결된 무늬가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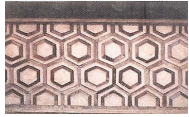



궁의 꽃담은 사찰이나 민가의 경우보다 화려하고 짜임새가 있으며 궁의 대부분의 담은 전(塼)을 이용하여 문양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표현되어 기본적인 담의 기능과 함께 장식적이고 기원이 담긴 의미의 무늬가 함께 나타나 장식과 실용을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조형 행위는 각기 문화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며, 이러한 조형의 한 형태인 문양이 지니는 미적 감각으로 표현되어 왔다. 암시적 기호나 상징적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문양에서 사람들은 예부터 건강과 부귀, 다남 등을 기대했으며 그들의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담에 문양을 넣어 소원을 빌었다.





그 각각의 문양들은 궁궐 건축뿐 아니라 민가의 살림집이나 사찰의 건축에도 나타난다. 비록

구워낸 전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담을 구성했는데
 그 재료는 돌이나 압, 수 기왓장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재료의 구성에 따라 문양도 다양하게





<표 1> 꽃담에 나타난 기하학적무늬

종 류	상징 및 특징	모양	
기하학적 무늬	귀갑문	그물을 엮은 모양과 비슷하며, 사마(邪魔)를 제어하는 일종의 벽사(辟邪)의 성격을 지님.	
	만(卍)자문	만자는 그 사방 끝이 중첩으로 늘어나 펼쳐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는 각종문양을 형성하는데 이런 문양은 무한 장구하다는 뜻을 내포함.	
	뇌문(雷紋)	그 형상이 연속되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최대의 길상, 장명사상(長命思想)을 나타내며 결실과 영구를 상징. 무시무종(無始無終).	
	일월성신 무늬	하늘에 그렇듯이 우주에 별이 총총하다는 의미. 화강석을 둥글게 다듬어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감입시켜 해, 달, 별을 표현	

<표 2> 꽃담에 나타난 식물무늬

종 류	상징 및 특징	모양	
식물 무늬	모란	당나라이래로 모란꽃은 번영, 창성(昌盛)의 꽃으로 미호(美好)와 행복의 상징, 목단문이라고도 하며, 식물 문양 가운데 최대의 길상적 의미를 지닌 소재.	
	연꽃	생활문양에서는 세속적 욕망과 결합되어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로 애호됨. 고대 인도의 불교 발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불교에서는 무상(無上)의 상징적이 꽃으로 청결, 순결을 의미.	
	석류	석류는 일면<사금대(砂金袋)>라고도 하는데, 그 씨를 비유한 것으로 자손의 번창을 염원한 것. 다산(多産), 다남(多男)을 상징한다.	
	포도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송이가 곧 다산(多産), 다남(多男)을 상징하는 까닭으로 뒷편의 여인들이 다니는 자리에 시문.	




<표 2> 계속

	매화	매화는 봄을 가장 먼저 전한다고 하여 일지춘색(一枝春色),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에 핀다고 해서 보춘화(報春花)라고 함, 인간의 고상한 품격에 비유되기도 하며 순결과 절개의 상징, 장수의 상징.	
식물 무늬	국화	늦은 서리를 맞으면서도 그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국화의 생태는 길상의 징조 또는 상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임	
	대나무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사계절을 통하여 색이 변치 않기 때문에 군자의 품격과 절개의 상징 벽사의 의미도 지님.	
	소나무	소나무는 유교적 절의와 지도, 탈속과 풍류, 장수를 상징	

<표 3> 꽃담에 나타난 동물무늬

종류	상징 및 특징	모양	
동물 무늬	사슴	장수의 상징물로서 소나무, 단풍, 바위 불로초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봉황	수컷인 봉(鳳)과 암컷인 황(凰)을 함께 이르는 말인데 용이 학과 연애하여 낳았다는 상상의 상서로운 새로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지녀 왕비에 비유되기도 함.	
	박쥐	한자표기 편복(蝙蝠)의 복(蝠)이 복(福)과 같이 소리 난다고 해서 일찍부터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옴.	
	거북	수명이 긴 생태적 속성에 기인하여 영년불사(永年不死)의 상징.	
	학	매우 신비스럽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장수와 군자를 상징.	
	나비	봄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짝을 찾아 생을 구가한다하여 자유연애와 기쁨, 사랑, 부부화합, 부귀영화를 상징	

<표 4> 꽃담에 나타난 문자무늬

종류		상징 및 특징	모양
문자 무늬	수(壽)	장명(長命)의 뜻으로 동방 삼국이 모두 길상의 으뜸으로 삼음. 모든 문양에 자주 쓰여 지며, 다양하고 간결하게 형태를 도안하여 표현됨.	
	복(福)	편복(편복)이라는 한자의 이름이 복(福)과 같은 발음이라는 점과 자손의 번창을 뜻한다는 데서 오복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형태상의 간결함으로 글자변형이 다양하지 않음.	
	희(禧)	기쁨을 의미하는 희자(禧字)는 기쁜 일이 많기를 기원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쌍희(禧禧)'자를 사용함.	

기하학적 무늬는 육각형의 귀갑문(龜甲紋), 만자문(卍字紋), 뇌문, 일월성신문, 영룡문 등과 기하학적인 문채(文彩)로 장식되었다. 잡귀를 막아 준다는 벽사(辟邪)의 뜻이 담겨 있다<표 1>.

식물무늬란 모란, 연꽃, 국화, 매화와 같은 꽃이나 대나무, 소나무, 석류나무 등을 무늬로 삼는 경우로서 화초담(花草牆)이라 부르게 되는데 꼭 식물뿐만이 아니고 동물무늬를 섞어서 구성하여도 화초담이라 부른다. 화초담에 나타나는 식물은 동물무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원을 담고 있다. 매화는 여인의 정절에 비견되기도 하며 포도 무늬나, 석류문은 다산(多産)을 의미한다. 또, 바람에 날리는 대나무는 선비의 굳은 절개를 나타낸다 <표 2>.

동물무늬는 상서로운 동물로 생각하는 사슴이나 길조(吉鳥)로 생각하는 학과 같은 조류들을 무늬로 하여 장식한다<표 3>.

문자무늬란 길상문자(吉祥文字)인 수복(壽福), 강녕(康寧), 부귀(富貴), 다남(多男), 만수(萬壽), 쌍희(禧) 놓아 쌓는 것이다. 장수의 약자는 ‘수’이고 오복의 약자는 ‘복’이다. 담 문양에서도 ‘수’자와 함께 ‘복’자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문자 모양은 옷에 수를 놓거나, 금박문, 그릇, 수저에

지 다양하게 쓰여 왔다. 장수와 오복 등을 영유하도록 기원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조상에 의해서라고 믿었다. 그래서 장수와 오복의 문자는 인간에게 내보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으며 이들은 보아줄 대상, 즉 신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서 문양을 형성, 표현한 것이다<표 4>.

십장생무늬는 동물과 식물무늬를 혼합한 것으로 장생불사(長生不死)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채화(文彩化)한 것으로 해, 산, 물, 돌, 구름, 술, 학, 불로초, 거북, 사슴들이 바로 십장생물(十長生物)로 이를 담(牆)에 장식한 것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십장생 무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듯하다. 경복궁의 자경전(慈慶殿) 후원 굴뚝을 겸한 특이한 공담(空牆)에 나타나 있다.9)

3. 전통 꽃문양의 종류와 조형적 특성

꽃문양의 유래는 2000년 전 한나라의 고분벽화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데, 이때부터 꽃문양은 가장 친숙한 자연으로서 인류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또한 꽃문양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대한 숭배 및 자연에 대한 경이감, 종교적인 의례나 전통적인 제례들의 많은 숭배사상이 평화를 존중하는 순박한 민족의 정서와 정감이 내포되어있는 것이다. 자연속의 풀 한 포기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도 자연을 초월한 대우주의 원리가 있으며 자연 속에 어울려 머문다고 믿으면서 삼국시대의 고분벽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순수 예술적인 감상을 위한 대상으로 발전해 오면서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한국적인 취향의 표현매체로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¹⁰⁾

고대에는 꽃문양이 자연숭배와 주술적인 것에 입각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불교적인 요소의 경향이 짙은 순수한 장식이었으며 고려시대에도 감상용 회화로서의 성향에 국한되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감상이나 장식 목적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서 생활용품이나 건축에 활용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감각과,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소재로서의 꽃은 예로부터 동서양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것은 틀림없다. 이는 꽃의 조형미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색채가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무수한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꽃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빌어 새롭게 현대의상에 예술미를 창조하고자 한 것이며 꽃은 자연풍경의 집중이며 자연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꽃의 모습은 자연자체이며 자연의 본질인 것이다.

또한 꽃문양은 꽃 자체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꽃이 지닌 이미지와 아름다움을 빌어 계절감, 자연에 대한 감정, 인간에 대한 감정,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꽃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신비스럽게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상태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꽃의 이미지가 주는 무의식의 대체효과(displacement effect)인 것이다.¹¹⁾

우리 민족은 꽃을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번영이나 부귀, 행복, 축복 등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랑의 표현, 숭배, 존경, 위문, 축하 등을 표하는 마음의 정표로도 사용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활 주변에 늘상 쓰이는 소품에도 수, 복, 귀, 다남, 강녕 등의 상징성을 담았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꽃문양은 연꽃, 모란, 국화, 매화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양들은 자수주머니, 민화, 도자기, 꽃담 등에 사용되었고 각각의 특색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자수에 나타난 꽃문양은 그 색상이 화려하고 다양하여 강렬한 색채 조화를 형성하였는데 특히 문양의 윤곽 부위에 점진적인 농담의 사용으로 일종의 운간법과 같은 효과로 입체감을 내며 금사자수의 현란함은 영롱한 색조화와 함께 화려하고 찬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¹²⁾

민화에 나타난 꽃그림은 원래 정통회화의 중요한 부분의 한가지로서 소망과 남녀사랑을 기원한다. 꽃그림의 표현은 꽃잎, 꽃술이나 줄기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다. 때로는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과장되게 그려서 가끔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색채가 실물과 같아 그림을 보고도 각각의 꽃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며, 섬세하고 예리한 세부표현이 이채롭다.¹³⁾

도자기의 꽃문양은 재료와 제작과정, 형태 등에서 오는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다. 도자기의 일반적인 형태는 회전축을 가지고 있는 둥근 형태여서 여기에 시문된 문양은 자연스레 이 형태에 적응해 왔지만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재료는 담과 동일한 흙이 주 재료여서 꽃담의 문양과 색상이 가장 동일하지만 무조적 표현의 입체감은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능화관은 우리 조상들의 기물 중 책 표지를 장식하기위해 썼던 문양 목판화이다. 옛 책의 표지를 보면 아름다운 색을 물들인 종이에 다양한 문

<표 5> 한국 전통 꽃문양

	연꽃	모란	국화	매화	출처
자수					「고구려의 연꽃문양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연구」, 2000
민화					「한국 민화에 있어서 꽃그림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1999
도자기					「우리 옛 도자기」, 1999
능화판					「가족의 엠보싱 기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2004
꽃담					「꽃담」, 1989

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 문양은 목판에 각종 문양을 조각하고, 그 요철의 문양을 책 표지에 박아 낸 것으로 여기에 사용된 목판을 능화판이라 한다.¹⁴⁾ 여기에 나타난 꽃문양은 외곽선을 요철로 표현한 것으로 자수와 민화의 꽃문양처럼 화려하거나 다양한 색채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요철은 꽃담의 꽃문양보다 약하다.

꽃담의 꽃문양은 형상을 부조시킨 무늬도판이 많다. 십장생 굴뚝에 나타난 꽃문양은 바탕이 벽

면과 일치하고 부조된 부분이 벽면보다 밖으로 튀어 나오는 입체적인 효과가 보인다. 꽃담 꽃문양의 선의 경향은 윤곽을 강조하고 투박하지만 색은 그 윤곽을 살리지 않으며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색은 배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흙색에 가까우며 강약이 없다. 또한 형태는 화려함이나 탐스러움이 배어나지 않으며 소박하고 단아하며 야하지 않아 한국인의 점잖은 품위를 잃지 않게 하고 있다.¹⁵⁾

4. 전통 꽃문양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

1970년대 후반부터 역사성과 지역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에 힘입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자성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패션계에서도 ‘민속풍’이 주요 테마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복식경향 속에서, 과거의 그리움, 역사성의 복귀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전통성의 중요함을 느끼게 했으며 전통 문양 역시 복식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되어졌다. 전통문양은 옛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는 아기자기한 장식미와 더불어 우리민족의 미의식과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의상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흔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래서 꽃은 단독 형태나 잔 꽃 형태 등으로 표현되면서 심플하거나 화사한 분위기로 가장 독특한 느낌에서부터 보편적인 느낌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티브 중의 하나이다. 꽃을 응용한 디자인(*floral design*)은 의상뿐만 아니라 순수예술, 인테리어 디자인, 환경디자인, 그 외 생활용품인 꽃병, 도자기, 악세사리, 식기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의상디자인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유명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꽃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에게 끝없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형형색색의 꽃이라도 꽃이 현대의상디자인에 영향을 준 이유는 조형미, 즉 이미지와 상징성 또는 그들이 지닌 언어에 기인한다. 현대패션으로 전개시킨 디자이너들의 작

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자이너와 작품 선정은 한국적인 디자인을 많이 한 대표적 디자이너, 작품을 발표한 그 해 컨셉이 한국적이 경향이 있는 시즌을 선택하였고, 작품에서 색상이나 실루엣이 한국적인 의상에 사용된 꽃문양을 선택하였다.

이상봉은 한국 문양을 모티브로 전통의 2004년 S/S에는 전통 모란꽃문양을 기계자수와 프린트로 현대 의상에 화려하게 도입하여 공단소재 블레이크 전면에 매우 사실적으로 자수를 놓았으며<그림 1>, 연꽃 문양을 양식화 하여 실크 소재에 프린트하기도 하였다. <그림 2>는 2006년 2월 파리 프레타포르테에서 꽃문양이 있는 한국화를 패션에 접목시켜 세계무대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설윤형은 2002년 F/W에서 검정 가죽을 원형의 조각으로 잘라 그 조각에 전통 꽃문양을 자수 놓고 붉은색의 테이프를 연결하여 A라인 스커트, 모란 꽃문양을 사실적으로 자수 놓아 허리부분에 덧댄 부스띠에, 형으로 덧대어 현대화시킨 디자인, 자수와 어플리케로 장식한 흉배를 연상케 하는 검정색 T셔츠, 자수를 놓은 공단 소재를 패치워크하여 색동저고리를 연상케 한 소매<그림 3>를 디자인 하였다.

BURDA MOON은 2004년 F/W에서 핑크색의 모시에 양식화한 꽃문양을 프린트하여 기모노 소매의 블라우스를 매우 여성스럽게 디자인 하였으며, 매화문을 번아웃 하여 양장의 현대적인 의상으로 모던한 느낌의 원피스를 디자인 하였다<그림 4>. <그림 5>는 AN Yoon Jung 작품으로 한국전통 혼례복인 활옷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드레스이다. 소매 전면에 행복을 상징한 회대의 질상의미가 있는 모란을 자수놓았다.

송혜련은 2007년 S/S에서 동양적인 문양을 현대적 요소와 조화, 믹스하여 다양한 실루엣으로 새로운 모던룩을 디자인 하였는데, <그림 6>은 한국의 국화문양을 광택소재에 필감을 더해 팬츠 전면에 양식화하여 프린트한 작품이다. <그림 7>은 실



<그림 1>
이상봉, 2004년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2>
이상봉, 2006년 S/S
파리 프레타포르테
(출처:
<http://www.liesangbong.com>)



<그림 3>
설운형, 2002년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4>
BURDA MOON, 2004년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그림 5>
AN Yoon Jung, 2007년 S/S
(출처: 『Seoul Collection
Lookbook』, 2006, p.90)



<그림 6>
송혜련, 2007년 S/S
(출처: 『World Book Moda,
Italy』, 2007, p.230)



<그림 7>
곽현주, 2008년 F/W
(출처: 『Seoul Collection
Lookbook』, 2008, p.70)



<그림 8>
강기욱, 2004년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

크 쉬폰소재에 모란 문양이 자카드된 곽현주의 원피스 드레스이며, <그림 8>은 전면에 연꽃을 크게 프린트한 A라인 원피스 드레스와 야구모자를 매치하여 고풍스러움과 캐주얼한 이미지를 믹스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전통 꽃문양들은 서양에서 디자인 모티브로 많이 사용되는 장미, 카네이션 등의 사용과는 상대적으로 모란, 국화, 연꽃 등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지닌 향토색과 감각적인 기질에 의하여 꽃의 표현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향기와 독특한 민족적 성향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기법들로 장식되고 표현되어짐을 알 수 있으며, 아름다움의 창출을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패션의 흐름에 맞추어 독창적인 복식 디자인이 세계무대로 진출하여 하는 현대의 디자인 연구는 한국적 이미지를 지닌 독창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디자인의 모티브는 신선한 것이어야 하고 이미지의 전개는 어떠한 것에 서든 가능하게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III. 작품 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꽃담에 나타난 문양은 우리 조상들의 다복, 다남에 대한 염원이 깃들여진 것으로 그 문양마다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꽃담 문양 중 장식성이 강하고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꽃문양을 모티브로 택하여 재구성하여 총 6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전통문양의 현대 복식의 표현방법은 전통문양 그대로 기계자수나 프린트 기법으로 화려하게 표현한 것이 많았다. 이와는 달리 우리전통 꽃담 문양을 이용한 새로운 표현 기법과 전통 문양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아플리케, 핸드페인팅, 비딩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작품은 여성을 위한 오피루어트적 성향의 작품으로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여성스러우면서도 간결하여 문양이 돋보이도록 디자인 하였다.

색채는 담의 색상과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 미의식을 토대로 채도가 낮고 은은한 라이트그레이쉬(light grayish)톤과, 라이트(light)톤, 페일(pale)톤을 주로 사용하여 소박한 자연미와 고풍스럽고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소재선택에 있어서도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우며 꽃담의 꽃문양의 특징을 위 기법으로 표현하기에 용이한 실크, 돈피 스웨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죽은 울 풀림이 없어 시접처리가 필요 없이 아플리케 기법에 적합하고, 핸드페인팅 염색으로 채도가 낮고 은은한 고급스러운 톤과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기에 용이하였다.

담에 나타난 꽃문양은 전통자수, 민화, 공예에 나타난 꽃문양 보다 형(形)은 단아하고 소박하며, 선(線)은 투박함으로 문양 표현기법으로 가죽을 문양 모양으로 오려 버튼홀 스티치로 아플리케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부조화로 표현된 꽃담문양의 입체감은 가죽에 문양을 핸드페인팅 한 후 문양 부분에 솜을 넣어 외곽선을 스티치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문양을 돋보이게 하고 의상의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프릴장식, 밉크 트립, 울풀기 등의 장식기법을 사용하였다.

2. 작품해설

작품 I 은 경북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의 연꽃 문양을 모티브로 돈피 스웨이드에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연꽃문양을 사실적 표현하고, 꽃담 문양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문양부분에 패딩 솜을 넣고 문양 외곽선에 스티치를 주었다. 이를 A라인의 원피스 중앙에 공간적으로 위치하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원피스 진동부분과 밑단 부분은 피콕색의 실크소재를 누빔 기법을 사용하여 밋밋한 소재의 재질감을 더하고 스커트 중앙과 색상 대비를 주었다.

작품 II 는 국화문 모티브를 재구성하여 돈피 스웨이드에 문양을 마름질하여 문양표현 기법으로 견사로 버튼홀 스티치를 이용한 아플리케를 하였으며 구슬과 비즈장식을 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이 작품은 투피스로 전통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실크 타프타를 0.8cm간격으로 누벼 재킷으로 제작하였으며 한국 전통 여밈을 응용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주었다. 색상은 포기 로즈(foggy rose)를 사용해 차분한 느낌이 들게 하였고 문양은 팬츠 좌우에 언밸런스하게 위치하였다.

작품 III 는 만월담 꽃담을 모티브로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슬림한 H라인이고 색상은 블루 애시(blue ash)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였다. 상의와 스커트 중앙의 밉크 트리밍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었고, 소매부분은 실크 안에 패딩 솜을 대어 누빔 기법으로 재질감을 주었다. 문양은 스커트 중앙에 앞에서 뒤까지 선적 나열했으며, 단순화된 이 문양이 상의에 사용됨으로써 상의와 하의의 연결성을 주었다. 문양들은 각각 버튼홀스티치로 아플리케 한 것으로 차분한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연출하였다.




작품 IV 는 자경전 서쪽담 매화문을 모티브로 도입한 것으로 30대 여성을 위한 투피스이다. 전체적 실루엣은 몸에 맞아 여성스러움이 강조되고 색




상은 연보라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차분한 파스텔 색상으로 페인팅한 가죽으로 A라인 스커트 전체에 아플리케 하였다. 와이셔츠 칼라에 몸판 중앙에는 셔링을 주어 부드럽고 상의 문양과 스커트 문양에 시선을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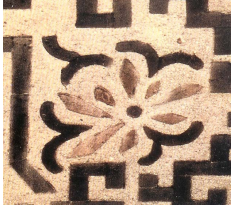


작품 V의 구성은 재킷과 피트 되는 팬츠이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허리는 피트 되고 재킷 단은 넓게 퍼져 조형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 부분에 포도문양을 핸드 페인팅 하여 넣고 문양 라인에 숨을 넣어 스티치 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허리부분에 누빔 장식과 양끝의 셔링장식이 문양을 강조해 주며 시선을 두게 하였다. 소매 끝에 누빔과 셔




링 장식은 몸판과 통일성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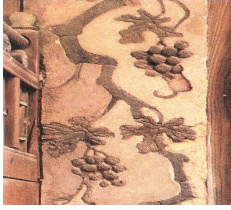


작품 VI 반원 형태의 재구성한 문양이 재킷 허리 양쪽에 위치한 투피스이다. 해남 대흥산 문양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의 실루엣은 상의는 몸에 맞고 하의는 풍성하게 하여 문양이 있는 상의로 시선이 가도록 하였다. 문양표현 기법으로 실크노방에 아플리케로 기본문양을 표현하고 가죽을 밑에 덧대어 중첩효과를 주었으며 레이스로 셔링을 잡아 트리밍 함으로써 디자인을 강조하였다.




작품 I	모티브		
디자인요소	모티브		
디자인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의 연꽃문양	변형 이미지	
아이템	원피스 드레스		
소재/기법	돈피 스웨이드, 실크/ 핸드페인팅, 누빔		

작품 II	모티브		
디자인요소	모티브		
디자인			
	자경전 서쪽담의 국화문	변형 이미지	
아이템	재킷, 팬츠		
소재/기법	돈피 스웨이드, 실크/ 핸드페인팅, 누빔, 비딩		

작품 III		
디자인요소	모티브	
디자인		
	만월담 꽃문양	변형 이미지
아이템	재킷, 스커트	
소재/기법	돈피 스웨이드, 실크/ 핸드페인팅, 누빔, 비딩	
		

작품 IV		
디자인요소	모티브	
디자인		
	자경전 서쪽담 매화문	변형 이미지
아이템	재킷, 스커트	
소재/기법	돈피 스웨이드, 실크/ 아플리케, 비딩	
		

작품 V		
디자인요소	모티브	
디자인		
	창경궁 일각문 담장의 포도꽃 문양	변형 이미지
아이템	재킷, 팬츠	
소재/기법	돈피 스웨이드, 실크/ 핸드 페인팅, 누빔	
		

작품 VI			
디자인요소	모티브		
디자인			
	해남 대홍산 꽃문양	변형 이미지	
아이템	재킷, 스커트		
소재/기법	돈피 스웨이드, 노방, 레이스 아플리케		

V. 결 론

각 민족마다 고유한 미술유산의 기틀이 되어 온 문양들은 장식적인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현대인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미적 욕구를 표현하려는 조형 활동의 매개체가 되어 왔다. 문양은 한 민족의 미의식, 생활의 여건과 감정, 정신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시대와 민족에 따라 특징적 양상을 보이므로 디자인의 한국 전통 문양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나타내어 세계화 시대에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 한 모티브로 꽃담에 나타난 문양의 개념과 상징성을 알아보고 조형적 형태에 따라 분류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 꽃문양과 이를 이용한 디자인 사례를 알아보고 전통 꽃문양을 현대패션으로 전개시킨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담에 나타난 문양 중 꽃문양을 조형적으로 재구성하여 현대 복식에 도입하여 가죽소재로 핸드페인팅과 버튼홀 스티치를 이용한 아플리케, 누빔, 울 풀기 등의 기법을 통해 문양을 복식에 도입하여 총 6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꽃담에 나타난 꽃문양은 전통자수, 민화, 공예에 나타난 꽃문양 보다 형(形)은 단아하고 소박하며, 선(線)은 투박하며 윤곽을 강조하고, 색(色)은 화려하지 않고 담의 주재료인 흙색과 비슷하여 채도가 낮다. 이는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우리 미의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둘째, 주술성과 상징성을 가진 담에 나타난 꽃문양 모티브 재구성을 통해 문양 디자인의 무한한 창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가죽을 응용한 핸드페인팅은 채도가 낮고 고풍스런 꽃담의 색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며, 또한 울 풀림이 없어 아플리케 기법으로 꽃담 문양의 다양한 특징적 형태와 조형성을 응용하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전통문양의 현대 복식에 도입은 디자인 개발에 있어 독창성과 고부가가치의 패션 상품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전통 꽃담 문양이 새로운 기법의 선택이나 현대의 감정, 정서, 시대상에 맞게 문양의 재구성 및 재창조로 디자인 개발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될 수 있음을 밝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안하여 디자인개발 영역을 확장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주남철 (1976). 한국건축에 있어 담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원논총, 28(-), p.162.
- 2) 안영배 (1980). 한국건축의 외부 공간, 서울: 보진제, p.30.
- 3) Bollnow, O. F. (1967). 인간과 그의 집, 이규호 옮김 (1988). 서울: 한국철학회, p.47.
- 4) 주남철 (1976). 앞의 논문, p.164.
- 5) 주남철 (1979). 한국 건축의 장, 서울: 일지사, p.176.
- 6) 신영훈 (1986). 한국의 살림집, 서울: 열화당, p.379.
- 7) 주남철 (1976). 앞의 논문, p.164.
- 8) 신영훈. 앞의 책, p.37.
- 9) 주남철 (1979). 앞의 책, p.8.
- 10) 이준화 (1998). 한국 민화에 있어서 꽃그림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6.
- 11) 박용숙 (1994). 한국의 시원사상, 서울: 문예출판사, pp.129-130.
- 12) 금기숙 (1994). 조선 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124.
- 13) 이준화. 앞의 논문, p.27.
- 14) 이태우 (2001). 능화관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 15) 송혜련 (2005). 한국 전통 담의 꽃문양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A Study on Fashion Design by Appl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Flowered-Wall Motives

- Focused on Flower Patterns -

Song, Hye Ryeon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oul Art College

Abstract

Shapes and patterns in textiles from different cultures are a reflection of the aesthetics, lifestyles, emotions, and psychological values of a certain era or an ethnic group. Thus, Korean traditional patterns and shapes may well represent Korean culture and differentiates its own characteristics from others. This study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traditional flower-patterned wall called 'kkot-dam' and some examples of its re-appearance in fashion design in the present day. The study leads to rediscovery of the practical and artistic advantages of the conventional flowery pattern as well a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use in modern fashion design. In the end, six garment samples were created using kkot-dam.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nes and shape that form kkot-dam are simple but graceful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esthetics: unity with nature. Secon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creating new designs by reorganizing the shapes of kkot-dam. Third, hand-painting techniques with leather are great in expressing graceful kkot-dam's low saturation color and is a suitable method for applying applique technique to express various shapes of kkot-dam.

Key words: kkot-dam(Korean traditional flowered-wall), flower motive, fashion design